

경남간호

Vol. 31

경상남도간호사회지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크고 뜨거운 손

내 손은 보통 사람보다 크고 뜨겁다
어릴 때는 긴 손가락으로 피아노 잘 치겠다는 소릴 자주 들었다

꿈꾸던 피아노는 치지도 못하고

불룩하고 큰 관절들, 솔뚜껑처럼 두툼고 큰 손등
사람들은 나에게 손맛이 좋다고 한다

오늘은 딸네 집에서 김밥을 싼다
예순 넘은 내 손 시금치 무치고 가지런하게 단무지 썬다
크고 뜨거운 내 손등 아래서 재빨리 숨이 죽는 음식 재료들
최고라고 엄지손가락 치켜든 손녀
섬 없이 김밥 옥여넣는 딸을 물끄러미 본다
그래, 이거면 돼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겠나
피아노, 매니큐어, 희고 가는 손가락, 다 필요 없다
김밥 맛있게 싸는 크고 뜨거운 내 손 고맙다
힘 다할 때까지 누구든 밥이나 실컷 해 먹이자
내 손등을 내가 쓸어 본다



윤덕점 前 소곡 보건진료소장



시작 노트

요리할 때 나는 즐겁다. 근무할 당시는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지역민들과 밥 나누길 즐겼다.
그리하여 늘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했던 보건진료소 근무였다.
지금도 나는 요리와 함께 데치고 다지고 볶으며 구수하게 살고 있다.



1957년 사천 연호리 출생. 시집『마로비벤을 꿈꾸다』『그녀의 배꼽 아래 물푸레나무가 산다』『크고 뜨거운 손』『웃지 않을 권리』공저
2017년 사천시 소곡보건진료소장으로 퇴직 후, (현)박재삼문학상 및 문학관 운영위원장,
동다현에서 -노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우며, 차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고 있다.

Vol. 31

경상남도간호사회지

경남간호





경남간호

Vol. 31

경상남도간호사회지

발행처 경상남도간호사회
 발행인 남정자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편집위원장 강미숙
 편집위원 강미운, 김영란, 남호희, 박영애, 최경란, 하미경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 055.262.6006
 홈페이지 <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여는시

02 윤덕점 | 크고 뜨거운 손
 前 소곡보건진료소장

권두언

06 남정자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갤러리

08 서희숙 | '달항아리', '여름의 끝자락'
 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경남간호인

10 장연이 | 밀양아리솔학교 보건교사

현장의 소리

- 13 허슬기 | 창원문성대학교
보건진료실 간호사

회원 작품란·시

- 16 권수혁 | 해진 마음 별 헤는 손길
창원파티마병원 간호사
- 17 최선임 | 하얀 등불
새롬재활요양병원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 18 박인숙 | 오늘도 사랑을 짓다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회원 작품란·수기

- 19 윤수연 |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응급실 간호사
- 21 정순천 | 용원메트로요양병원 간호사

회원 작품란·웹툰

- 23 이현영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술실 간호사

회원 작품란·작품

- 24 거제시간호사회 | 천연염색 앞치마
- 25 합천군간호사회 | 라탄소품

정년퇴직 회원들의 수기

- 26 홍은주 | 前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
- 30 우경미 | 前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학술란 : 제34회 학술대회 최우수상(2편)

- 3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QI 활동 사례 부문
수술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활동
- 35 경상국립대학교 | 포스터 부문
암센터 주사실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환자 경험 향상

경남간호 '핫 이슈'

- 36 남국진 | 진료지원간호사
- 40 남정자 |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
- 43 이영진 |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45 윤연옥 | 간호돌봄봉사단
「산청군 수해복구 지역 대민지원 봉사」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 47 경상남도간호사회 본회 주요소식
- 60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주요소식
- 68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소식
- 71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 활동
- 74 경상남도간호사회 조직도 및 현황
- 79 편집자 레터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남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17,000여 명의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1회 경남간호사회 회지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의료 위기 등 다양한 과제 앞에서 경남의 간호사들은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켜 왔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1년 6개월간의 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감내해야 했고, 6월 21일 드디어 간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표준 교육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등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헌신은 경남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경남간호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간호사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즉, 조직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확대 등 다양한 사업과 간호 정책 활동 확대 및 정책 제안, 대외 유관기관 활동 강화를 통해 간호사가 존중받고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인력은 바로 간호사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간호사를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회 회지는 이러한 우리들의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경험이 담긴 작품과 수기, 학술, 핫이슈, 경남간호사회 소식, 그리고 경남 간호의 미래를 위한 제언들이 담겨 있어, 이 회지가 회원 상호 간의 소통과 연대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남간호사회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전문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회원 한 분 한 분이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간호의 가치를 지켜내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31회 회지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집위원님들과 직원, 출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모든 회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자긍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캔버스 F 10호 53 x 46 cm | Oil color on paper 2023.

● 달 항아리

작가 노트

달 항아리:국보 제310호.

달항아리 같은 어머니의 모습 하얗고 둥근 숨결 속에 세월을 담아 품은 그릇.

티 없이 고운 살결은 묵묵히 빛을 머금어 늘 곁을 밝혀주는 달빛 같다.

비워내며 채워주고, 흘러도 가득한 사랑

순수와 여백의 미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지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달 항아리.

작가 노트

여름의 끝자락.

푸른 사과는 아직 햇살을 다 머금지 못한 채 가지 끝에 매달린 젊은 시간 같다.

미완의 빛을 지닌 채, 다가서면 입안을 자극하는 시큼함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그것은 설익은 그리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비유이기도 하다.



서희숙

現 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캔버스 P 8호 45.5 x 33.4 cm | Oil color on paper 2025.

● 여름의 끝자락

경남간호인(人)



장연이

밀양아리솔학교 보건교사



간호를 품고, 다시 나의 꿈으로

지금 나는 시골의 작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교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어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가정집이 마주하고 있다. 가정집 마당에서 키우는 감나무에 감이 열릴 때면 눈이 참 즐겁다. 진한 초록색, 주황색이 어우러져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옛날 할머니 집 뒷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잊었던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오르니 고기잡이배에서 줄줄이 물고기를 낚아올리듯 생각지 못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추억이 참 많았구나...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 감사했다.

이곳은 보건실이 1층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바깥바람도, 새소리도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정겹다. 출근해서 아이들을 기다리다 보면 문득 5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내 꿈에 다시 도전해 보겠다고 다짐하던 모습, 그때 상상해 본 미래의 내 모습까지... 지금의 내가 바로 상상 속의 나와 같음을 알고, 기적을 느꼈다. '지금 이 일상이 현실인가...?' 이 시간과 공간이 너무 기적 같아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장연이,《엄마마흔, 시작하기 좋은 나이》중

간호사로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임상에서 지냈다. 있는 힘껏 해도 버텨내기 녹록지 않았던 병원생활이었기에 미칠 듯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느새 난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간호사로서 일하던 마지막 2~3년 그즈음에서야 난 진짜 간호를 할 수 있었다. 매일 생명을 살리는 내 손을 칭찬하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내 가슴을 격려하며 무지와 방심으로 인한 실수로 환자분들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내 머리에 응원을 보냈다.

쫓기듯 그날의 근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끝내면 실수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머릿속에서 하루를 복기했다. 퇴근 후 집에서 정신없이 육아를 하면서도 병원 일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부분은 그럭저럭 별일 없이 잘 지냈다 싶지만, 어느 날은 아차!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내 실수가 떠올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어떤 날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진정한 나비효과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경험들 덕에 나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챙겨보는 성향이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심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민하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는 책을 통해서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에리히프롬(Erich Pinchas Fromm)은 《사랑의기술》에서 성경의 한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한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고’, ‘무엇인가를 키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며 사랑과 노동은 불가분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마련이다.”

이 구절을 읽으며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바로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사랑하진 않았다. 사랑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내 의무에 충실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해야 할 일’에 정성을 쏟아보니 어느새 내가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순간 눈물이 날 것처럼 몽글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힘들고 고단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임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임해왔고 어느새 그 일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렀음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마치 오랜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은지 상상해 보는 기분이었달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잊혀진지 오래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마흔 즈음이 되니 그 꿈은 ‘지금도 마지막 기회야’라며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지금까지 내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열렬히 사랑했었다는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 꿈을 향해 도전해 볼 용기가 되어줬다.

그렇게 주변의 우려와 소극적인 반대,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을 등에 업고 나는 마흔에 임용고시에 도전했다. 육아에 여념이 없을 시기의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해야 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내 꿈에 시간, 돈,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여태 가져보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과 죄책감,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수험생으로서의 내 하루를 더 충실히 채워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초수에 재수까지 견디며 나는 결국 보건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치열하게 쌓아간 나의 노력과 주변의 이해와 도움, 운이 따라주었던 상황까지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모여 내 꿈을 이뤄주었다.

오랫동안 내 삶을 관통하며 알게 모르게 나를 시름하게 했던 미완의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니 한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며 더운 사람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내 안의 가장 큰 갈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보건교사라는 이름으로 첫 출근한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수학교 거기다 신설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으로 다가온 내 첫 발령지는 밀양아리솔학교다. 보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을 찾아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밀려드는 2~3초의 감동을

끝으로 나는 1년 내내 정글 숲을 헤쳐나가는 기분으로 업무를 해결해 갔다.

퇴근 후 집에 가서는 내일 출근할 생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엔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싶어도 새벽 3~4시면 눈이 번쩍 떠졌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한 마음에 (사실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기보다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내게는 낯설고 스트레스였다) 새벽같이 출근길에 나서면 텅 빈 학교에 1등으로 들어서곤 했다. 그렇게 책상, 의자, 컴퓨터밖에 없던 보건실에서 침대, 약장, 의료용품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고 구색을 맞춰나가며 정신없이 1년을 보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었을 무렵에서야 나와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라진 내 상황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내가 무엇을 원했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고 꿈을 이루었다는 점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내내 미뤘오던 숙제를 끝냈다는 해방감은 이전까지 방황하던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드디어 그 시간들에 마침표를 찍게 해줬다.

그리고 나는 책을 썼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로서,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에세이예요? 자기계발서예요?” 묻는 분들이 많다. 아마 에세이와 자기계발서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다. 도전과 시작을 부추기며 마음의 부대낌을 만들고 싶진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성장하고 도전하는 삶’을 추구하는 내 명확한 가치관이 나타나니 자기계발서라 할 수 있겠고 그것을 내 평범한 일상에 녹여냈으니,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꼭 성취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변과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돌아봄으로써 나와 내 삶을 사랑해 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를 잃지 않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바탕이 될 것이다.

천 길 벼랑 끝 100미터 전.

**하느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미터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미터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느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한비아,《그건 사랑이었네》에 수록된 어느 프랑스 시



모두가 자신만의 날개를

각자의 방법으로

펼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허슬기

창원문성대학교 보건진료실 간호사

2023년부터 2년 동안, 나는 창원문성대학교 보건진료실에서
대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사로 근무해 왔다.
대학교 보건실은 『학교보건법』과 대학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채용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
그래서 처음 이 자리에 지원할 때만 해도,
내가 실제로 이곳에 근무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캠퍼스로, 새로운 간호의 시작

나는 30대 초반, 간호대학에 학사 편입하여 창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꿈꿔왔던 서울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근무 중 번아웃을 겪으며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직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전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행정조교로 일했던 경험과, 기업 사무직 경력이 떠올랐고, 그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 창원문성대학교 보건진료실 간호사 채용에 도전하게 되었다.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에는 능숙하지만, 행정 업무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였다. 병동 근무 당시에는 드레싱과 같은 처치 업무에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의사나 상처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본 처치 기술은 익숙하지 않았다.

전임자로부터 반나절 동안 인수인계를 받은 뒤, 기본간호학 핵심술기 영상과 유튜브 강의를 반복 시청하며, 화상과 타박상 등을 위한 드레싱과 처치 기술을 스스로 익혔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어느새 학생들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처치하는 일이 내 일상이 되었다.

매일 학생 곁에서, '생활 속 간호'를 실천하다

대학 보건실 간호사의 기본 업무는 투약과 처치, 약품 관리, 그리고 보건실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 업무다. 매일 보건실로 찾아오는 학생들의 두통과 복통을 상담하고, 크고 작은 상처를 직접 소독하며, 개개인의 건강 문제에 귀 기울이는 일상은, 간호사로서의 초심과 '평범한 간호' 속에 깃든 진심을 되새기게 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급히 찾아온 학생을 응급조치한 뒤 119에 인계했던 날도 있었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린 뒤 스스로 보건실을 찾아온 학생도 있었다. 한 번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어지럼증과 불안을 호소하던 학생이 찾아왔는데, 단순한 처치를 넘어 그 학생의 두려움과 혼란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곁을 지켰다. 말없이 함께 머물러주는 것 또한 간호의 중요한 일부임을, 그 순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 불균형이나 위생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부서, 지도교수, 외부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예방이 일상이 되는 대학 캠퍼스를 위해



내가 부임한 2023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대학 내 보건 프로그램들이 점차 재개되던 시기였다. 나 역시 이전에 진행되던 금연 캠페인을 다시 열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과 보건소는 이미 신청 마감 상태였다. 그때 예전 직장에서 외부 기관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타 대학 보건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며 여러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는 결과, 첫해에는 창원보건소와 대한 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의 협조를 받아 '건강한마당'과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2024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되었다.

보건진료실 주도로 창원문성대 재학생 금연서포터즈를 조직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재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보건 캠페인 홍보 포스터도 교내 곳곳에 활용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사회 보건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원보건소와 연계해 서포터즈 기회를 마련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형 활동으로 확장시켰다.

이 외에도 절주, 도박 문제 예방,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운영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재학생들이 캠페인 준비와 현장 운영에 함께하며 '예방'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였다. 한 학생은 이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를 새로운 진로로 삼게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보건진료실 간호사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벽찬 고백은 지금도 내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이는 내가 보건실에서의 시간을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생에 닿는 간호'로 기억하는 이유다.

2024년부터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매회



다양한 지역에서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고, 나 또한 모든 교육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함께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나눴다. 캠퍼스 내에서 다루기 민감한 주제였지만, 교육 후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된 태도를 보며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5년 2월 창원문성대학교 보건진료실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 지부와 공식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마약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1인 보건실 간호사의 현실과 남은 과제

보건실 간호사로서의 지난 2년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보건 간호'의 가치를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했다. 『학교보건법』은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대학교에는 적용이 느슨하여 보건실 운영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재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각 대학의 보건실 운영은 간호사 개인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대학의 예산과 보건실 총책임자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대학은 보건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간호사 1인의 전문성과 열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보건실 간호사가 1인 체제로 근무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동료'가 부재하다라는 것이다. 주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은 보건실 총책임자인 교수가 제시해 주지만, 일상적인 건강 문제 대응부터 긴급 상황의 판단, 보건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실무는 간호사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은 물론, 캠퍼스 내 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일까지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행히 나의 경우, 보건진료실장인 간호학과 이숙희 교수님께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시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맡겨주신 덕분에, 보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력과 실행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 속 간호사의 실천적 역할과 영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보건실'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건강한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조용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어떤 간호사로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묻게 하는, 확고한 이정표가 되었다.



해진 마음 별 헤는 손길

메마른 대지 위
목마른 뿌리들이
푸른 꿈을 꾸는 밤
홀로 깨어난 그대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샘물을 길네.

핏물 물든 석양 아래
저무는 노을을 보며
말없이 땀을 닦는 그대
스치는 바람결에도
숨죽인 꽃잎 하나
다시 피어나길 비네.

얼어붙은 창가에
별 하나 깜박일 때
작은 온기 모아
희망의 실을 짠 그대
보이지 않는 바늘로
찢어진 마음의 옷을
밤새도록 길고 있네.

고요히 잠든 세상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대의 손끝에서
새벽은 다시 태어나고
무수한 생명들이
새로운 숨을 쉬네.



권수혁
창원파티마병원 간호사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의 안녕과 삶을 책임지는 간호사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입니다.

하얀 등불

하얀 가운 입은 그날부터
나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로 했다.
처음 잡은 청진기의 떨림,
처음 마주한 고통의 눈동자.

낮과 밤의 경계도 없이
삐삐 울리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달려가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요” 속삭이던 스무 해.

울음을 삼키며 웃어야 했고
무력한 마음에 눈물 흘리던 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내가 간호사로 살아낸 증거였다.

아이의 첫 울음에 함께 웃고
어르신의 마지막 숨결에 함께 울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수없이 손을 잡아 주었다.

스무 해가 지난 지금,
주름진 손 위로 스치는 햇살처럼
나의 시간이, 나의 진심이
누군가의 치유였기를.

나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얀 등불 하나 들고
누군가의 어둠 속을 비춥니다.



최선임

새롬재활요양병원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오늘도 사랑을 짓다

부드럽고 조용히 걸어가는 길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아도
한 줌 위로와 한 땀 정성 담아
숨결마다 새긴 사랑의 이름

바람에 실려 온 지친 소리
숨죽여 아파하는 곁에서
고통 속 이들과 함께 견디며
다정한 손길로 위로했네

내일의 따스한 햇살 안고
조용히 간절한 마음 모아
돌봄은 삶의 노래 되어
오늘도 사랑을 짓는다



박인숙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환자복을 입고 배운 간호의 마음



윤수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응급실 간호사

나는 13년 차 대학병원 간호사다.
그동안 한 번의 이직과 네 번의 전배를 경험했다.
누군가는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안정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보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전배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리
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내게 2020년,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감염관리실로 전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뒤 흔든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감염관리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하루하루가 '1분 대기조' 같은 삶이었다. 그때 나는 돌이
막 지난 아이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지만, 가족을
돌볼 시간은커녕 나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격무
속에서 일상과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생명이 찾아왔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내 환경은 '조심'이 허락

되지 않았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수술이 필요
합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소파술이 진행되었고, 나는
환자가 되어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해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채 거즈로
압박만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마취에서 깨어
나자, 혈압은 60/40, 50/30으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뻑뻑하게 서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몸속 체액과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불을 5겹이나 덮어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회복실의 공기와 온도는 지금도 생생하다. 수술은
제대로 끝나지 못했고, 나는 '경과 관찰'이라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입원 생활을 시작했다. 퇴원 날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의 유일한 기대는 회진이었다.
간호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약을 주며 건네는 말 한
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진짜

환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환자의 입장을 안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사실은 의료진의 시선에 더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의료진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해야 하는 환자의 자리였다.

퇴원 후에도 치료는 이어졌다. 남은 조직을 줄이기 위해 항암주사를 맞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 후 갑작스러운 대량 하혈로 가족들 앞에서 쓰러졌다. 119가 도착했을 때 혈압은 또다시 60/40이었다. 응급실에서 나는 AVM(자궁 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았다. 자궁 색전술을 권유받았지만, 설명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환자로서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절차가 환자에게 얼마나 차갑게 다가오는지 알았다.

시술대에 누워 '큰 동맥을 뚫어 관을 넣는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예전의 나는 환자에게 당당히 설명하던 의료진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된 나는 이유 없이 불안했고,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시술은 실패했다. 혈관이 심하게 꼬여 조영술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언제 다시 출혈이 있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몸으로, 나는 기약 없는 입원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전공의가 말했다. "이대로라면 자궁을 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 버팀목이 무너졌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서른이었다.

나는 분만실 복도를 지나 입원실로 돌아가며 평평 울었다. 복도의 공기와 적막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모든 경험은 간호사로서 환자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많은 의료인이 "직접 환자가 되어봐야 환자 마음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기, 복통, 출산처럼 비교적 일상적인 경험에 머문다. 나처럼 반복된 위기, 불확실한 예후, 실패한 시술,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험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환자는 회진의 1분을 위해 하루를 기다린다. 의사의 말 한마디, 간호사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희망이 달려 있다. 나는 그 과정을 겪으며 떠올렸다. 내가 환자에게 던졌던 무심한 말, 피곤한 얼굴, 바쁜 틈에 흘려보낸 말투가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남는 기억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봉사의 마음으로 간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 경험은 힘든 시간을 넘어 나를 돌아
보게 한 계기였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이 시간을 간호사로서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한 터닝포인트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진짜 간호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스토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품고 간호사로 살아
가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환자에게 진심을 전하는
간호사이고 싶다.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또 내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좋은 하루'로 남길 바란다.



다시 간호사....



정순천

용원메트로요양병원 간호사

난 62살의 나이트 킵 간호사이다.

이 나이에 나이트 킵을 한다 하니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말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어언 40년 차의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새삼 밤 근무를 못하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아직 적응단계라 수면 불량에 시달리는 중이다.

원래가 밤 잠이 잘 없고 낮 잠도 없는 편이라 그럴 테지만 패턴이 바뀌니 한동안은 혼란할 듯하다.

오랫동안 부서장이란 이름을 달고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다.

늘 직책이 주는 무게로 가만있질 못했고 간호사들의 성향이 그렇듯 동동거리고 온 몸의 촉수를 다 세워 가며 마치 세상에 혼자 일을 다 하는 듯 예민하게 굴었던 시절이었다.

정년이 오리란 걸 생각도 못 하고 설사 정년이 있다 한들 이리도 열심히 하는 나한테만은 비껴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에 느닷없이 정년이란 통보를 받았었다.

휴일도 밤낮도 구분 못 하고 집보다 병원이 더 익숙

하게 부서장이란 무게를 지고 달려온 시간들이 진심 덧없다 싶을 만큼 제법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기에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모든 부서장들이 스트레스받는 인증제니, 적정성평가니 또한 환자 수가 줄면 병원 경영을 신경 써야 하고 늘면 느는 대로 직원들이 힘들까 걱정해야 하는 등 모든 일상의 업무들이 다 긴장을 주는 일들이기에 이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어설픈 위로도 해보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엄청난 자유를 감당 못 하고 일이 떠난 빈자리에 허전함 가득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생애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어린 날엔 부모가 보살피고 청장년엔 내 힘으로 잠시 살고 나이가 들었더니 나라에서 인생 절반을 구해 주나 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몇 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들뜬에 함부로 풀려진 소나 양들처럼 영혼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먼 나라 여행도 가고 실컷 게으름도 피우며 그렇게....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의 요양병원에 달포전에 취업을 했다.

근무처가 가까우니 얼마나 다행이라 싶어 기꺼이 입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부서장을 하다 보니 임상에서 오래 손을 놓았고 막상 일선에 투입되려니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다.

스스로의 틀에서 깨어 나와 나는 전에 무엇이었나가 아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발을 딛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큰 용기를 내어 덤석 도전하게 되었다.

내 아이보다 더 어린 후배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그 또한 새삼 활기차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머리가 어깨가 긴장으로 가득함을 즐기게 되었다.



의식이 없는 분들,

모니터에 의지해 가쁜 호흡을 끌어가는 분들,

밤새 들끓는 가래로 침 없이 흡인 해주어야 그나마 고른 숨을 쉬는 분들,

끝도 없이 자녀들의 이름을 밤새 불러 대는 그들의 긴 그리움에 같이 밤을 뒤채이며 다시 또 간호사로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다.

예전엔 다 건강했고 더더욱 아름다웠고 세상 속 들뜬 꿈으로 분주했을 그들이지만 지금 어찌다 이리도 긴 잠에 빠져 누워 있나 싶어 마음이 자주 먹먹한 날들이다.

비록 몸은 내 맘대로 안 되어 누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젊은 날 행복했던 그 기억의 시간 속을 떠다니며 한 여름밤의 꿈처럼 단잠에 들어 있길 바라본다.

고급 레스토랑에나 있을 법한 상들이리가 달린 천장, 벽면을 가득 메운 그림들을 보노라면 아직 뵈지 못한 이사장님의 취향을 감히 알 듯하다.

어르신들에게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으신 걸게다.

새벽이 깊어지면 습관처럼 천천히 복도를 둘러보며 그림 감상을 하는 것도 밤 근무 중 하나의 루틴이 된다. 그 집 속에서 어르신들은 아직도 미옥한 나도 집처럼 스며들길 기대해 본다.

아침잠 없는 어르신들은 영락없이 3~4시면 깨어나 바스락 소리 나는 마른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인다.

밤새 수고 했다 하는 한 마디에 왜 그리 또 울컥 못먹이 아픈 건지 난 영락없이 또 간호사인가 보다. 사실은 밤 새 별일 없이 아침에 눈 떠주어 내가 더 고마운데...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하지만 시간은 나이만 쌓아 가는 일이 아니고 행복한 기억을 쌓아 가는 일임을 새삼 배운다.

아직 건강해서 아직 간호사여서 오늘도 이들의 밤을 지킬 수 있어 그저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또 살아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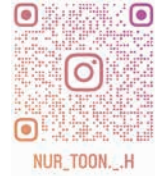
츄네레처럼 슬쩍 내가 실수한 작은 일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고쳐 놓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밤 근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는 따뜻한 병동 직원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한 막을 마치고 잠시 주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길.... 인생의 실패를 찍을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땅의 모든 간호사들의 연장선을 지키는 작은 한 점이 되시길.... 아직도 여전히 늦지 않았음을 권하고 싶다.

낮 동안 노모랑 누긱이 점심도 먹고 은빛 반짝이는 바닷가 카페에서 노모가 좋아하는 노을도 보고 그 동안 미처 몰랐던 낮 시간이 주는 여유를 즐기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누이는 들풀처럼 그리 손하게 살아가려 한다.

이렇게 이번 생은 간호사로, 다시 간호사로 지금 내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중이다.....

진해 용원메트로 요양병원 7병동 정순천 ✨



이현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술실간호사

수술실에서의
의아한 상황



수술중 교수님이 기구를 부러뜨렸다...



1

2

3

4

수리를 위해 수쌤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정말로 의아하다...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제시간호사회



천연 염색 스카프 만들기



사업대상 경남간호사회 및 거제시간호사회 등록회원 36명

사업기간 2025. 7. 1.(화) ~ 7. 2.(수)

- 사업목적**
- 간호역량 개발을 위한 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카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 시각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회원 간 관계 발전에도 기여



합천군간호사회



손으로 엮는 마음치유



사업대상 경남간호사회 및 합천군간호사회 회원 24명

사업기간 2025. 4. 30.(수)

- 사업목적**
- 간호사로서의 직무 외에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소규모 공예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유도
 - 회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간호사회 내부의 유대감 및 조직력 강화



꿈을 찾아가는 길에서 감사를 전하며...

홍은주

前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



1986년 2월 대학 졸업 며칠 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로 부터 응시원서 한 장을 받았다.

경상남도 간호직 공무원 공개채용 원서였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7월 4일 발령장을 받았고, 그때는 40세가 되면 직장생활 마무리하고 취미 활동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었다.

보건소에서 3년간량을 근무한 후 의료 취약지라는 이유로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기능 전환됐다. 그 와중에 그만둔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일에 매달려야 했다. 14년 동안 응급실과 입원실, 외래근무, 의료비 청구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공무원으로 생활했다. 또 지식의 한계를 느껴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 취득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후 다시 보건소로 기능이 전환된 후에는 정신보건센터, 예방접종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감염병 관리,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소 업무를 두루 맡았다.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고, 어떤 일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준비 등으로 다음 날 새벽까지 별을 보며 근무하기도 했다. 그런 바쁜 나날들...

연휴와 설, 추석이 되면 비상근무로 제대로 쉬어 보질 못했고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일을 두고는 퇴근할 수 없는 성격이라 열심히 일에만 전념한 결과, 맡은 업무마다 개인 표창과 경상남도지사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외국 연수를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마저 들었었다. 그래도 선배님들과 동료, 후배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일에 매달려 있을 때, 2017년 이경옥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분회 창립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함안군간호사회 창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정년퇴직 회원들의 수기 ①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했다. 관내 부서장들과 이사들의 협력으로 분회 중 제일 늦게 창립했지만, 다른 분회에 못지않은 회원 배가 운동과 결속을 다져, 많은 행사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등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창립 당시, 현재 경상남도간호사회 옥행자 이사가 총무를 역임하면서 서로 많은 의지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함안군간호사회 이사님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3년, 오랜 동료들의 퇴직으로 마음이 허허로워 명예퇴직에 대해 고민하다 결국 12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37년 6개월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잠시의 휴식 시간도 없이 지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간호사회 사무처장 공개채용 공고를 안내받고 겁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 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경상남도 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각종 위원회 회의, 간호법 제정 집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등에 정신팀이 매달렸다.

회칙 및 규정 개정, 각종 행사 진행과 참석 등으로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2024년을 보내고 나니 2025년 6월 정년이 내 앞에 성큼 다가왔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소진된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 여기서 정년 사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를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정년을 앞두고 맡은 업무를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듯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더 잘해 나가지 않겠는가!!!

남들은 말한다.
일복이 많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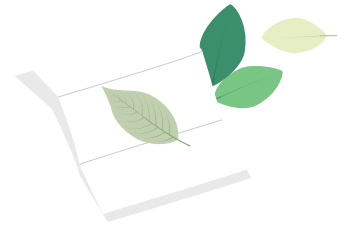
되돌아보면, 힘들고 다양한 행사와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경상남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영상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주마등처럼 그 장면들이 생생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직원들의 노고, 많은 회원

님의 마음이 그 짧은 영상에 녹아 있고 그 마음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었기에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리라.

지난 1년 6개월은 공무원으로 지낼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그래도 그 바빴던 시간만큼 자부심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다. 사직한 지금은 그렇게 바빴던 시간이
경상남도간호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 경상남도간호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빈다. 후임자를 비롯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해 낼 것이다.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재직 중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남정자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장님 이하 임원님, 분회장님, 위원님들,
사무처와 간호인력지원 경남센터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9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눈을 뜬다. 삶의 충전과 여유를
갖기 위해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신청해서 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종교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소망했던 40세의 꿈을,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한,
그렇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내게 자유의
선물로 주고 싶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을...

인생 제2막은

다시

처음으로...

우경미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나는 2025년 8월 31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에서 12년4개월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퇴직(退職)은 교수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고, 은퇴(隱退)는 소득활동을 멈추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나는 퇴직인가? 은퇴인가?

100세 시대

대학을 졸업하고 임상간호사 15년, 대학 시간강사 15년, 교수직 15년 생활을 한 것 같다. 나름 미래를 예측하여 노인전문간호사로서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등 모든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섭렵하고 나니 학문의 통합성도 알게 되고 어릴 적 건강관리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간호사가 된 것은 나의 뜻 이라기 보다는 성적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임상생활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천직(天職)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전생을 통틀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나의 은사님이시자 간호부장님께서서는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밀어 주셨다. 그래서 난 ICN 기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 전문과정 3개월을 부산대표로 참석하여 확연한 서울과 지방의 간호와 의료의 차이를 느끼고 왔다. 일반 간호사로 안주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병원과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였다. 이 또한 부모님과 가족들의 협조였다.

지도교수님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건강관리자 양성교육을 위해 서울을 자주 오갔다. 강의 횟수도 제법 늘었는데, 나의 말투를 두고 학생들이 “부산 사투리 같다”며 웃기도 하고, 향의 아닌 향의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부산 사투리로

맞받아치곤 해서, 결국 “묵은지 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서울까지 다니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과 가족들의 든든한 뒷바라지 덕분에 버스도 타고, 때론 기차도 타며 여행하듯 강의길을 다녔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자 배움이었고, 덕분에 강사로서의 제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 간호사가 되고 싶은 열망은 오히려 지방대 학생들이 더 컸던 것 같다.

나는 2010년부터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 강의전담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이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로 옮겨 강의를 지속했다. 처음엔 강의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강의뿐 아니라 행정까지 도맡아 이분적인 업무를 시작하게되었고, 학생들 수업뿐 아니라 성적관리, 심리상담, 취업 문제까지 챙기다 보니 8시간 근무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출근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은 없는 삶이 시작되었다.

주말도, 방학도 없는 삶, 여행이란 건 생각지도 못한 삶 속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나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다행히 양산에는 아름다운 양산천과 낙동강이 있다. 저녁이 되면 노을에 물드는 강가를 따라 걸으면, 하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2014년, 암 가족력이 있는 나는 결국 언니 여동생에 이어 가장 늦은 암환자가 되고 말았다. 처음 암환자로서의 진단을 받았을 때 든 생각은 ‘간호학과 교수는 남들보다 조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정년퇴직 회원들의 수기 ②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고, 동료 교수님들도 보고 계시니 나만큼은 암을 친구처럼, 의연하고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하염없이 또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암제는 잔인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말초신경염으로 인한 고통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진통제로 겨우 버티면서 나는 이 아픔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이자 교수로서 책오로지 배웠던 간호를 실제 환자 입장에서 몸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임상은 4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 만성질환자는 늘어났고, 환자들도 이제는 자기 질환에 대해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아는 것이 있어도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느낀다. 정말 간호학과 교수는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간호사들에게 원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슴이 따뜻하고 환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정직한 간호교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느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은퇴자가 되고자 한다.

어느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교수로써...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일을 위해

나는 다시 강사로 돌아가지만

임상에서 간호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환자의 옆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고자 한다.

WHO의 건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025년 9월 나의 제 2막 인생을 설계하면서...





QI 활동 사례 부문 최우수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술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활동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urgical supplies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지현, 김진주, 황태훈, 김규리, 박혜연, 김유빈, 김지현, 박지영, 김지옥, 윤지영, 윤은희, 이진아, 박가희, 박혜영, 이미진

1. 활동의 필요성

의료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병원 진료재료가 다양화되고, 고가의 진료재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술재료는 병원 진료재료 중 45~65%를 차지하고 있어, 수술재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현재 우리병원의 수술재료 또한 종류와 규격, 품질이 다양해지고 고가의 재료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술재료의 재고자산 금액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표준화된 지침이 부재하고, 적정재고의 기준이 없어 수술재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술재료의 적정재고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재고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수술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2. 문제 분석 및 목표

1) 문제 분석

- (1) 수술재료 재고자산 금액의 상승
- (2) 수술재료의 비효율적 관리

① 시스템 요인

- 표준화된 지침 부재 : 고연차 간호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관리
- 적정재고 기준 부재 : 재고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고, 관리가 어려움
- 수술재료의 사용과 수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② 환경적 요인

- 수술재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진료과마다 다양한 수술재료를 사용

③ 인적 요인

- 수술재료에 대한 지식 부족, 수술재료 관리 교육의 부재

2) 핵심 지표 및 목표

- (1) 지표 1 · 중앙수술실의 당월 재고자산 금액 : 1,257,423,212원
목표 · 개선 전 대비 개선 후 10% 이상 감소 한다.
- (2) 지표 2 · 수술재료 관리업무 난이도 : 2.44점
목표 · 개선 전 대비 개선 후 10% 이상 감소한다.
- (3) 지표 3 · 수술재료 관리업무 만족도 : 3.37점
목표 · 개선 전 대비 개선 후 10% 이상 증가한다.
- (4) 지표 4 · 수술재료 관리업무 지식 정도 : 3.37점
목표 · 개선 전 대비 개선 후 10% 이상 증가한다.

3. 개선 활동

1)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및 배포

: 병원 자산의 이해, 수술재료의 사용 과정, 표준화된 관리지침(보관, 적정재고, 재고조사, 유효기간, 장기 적체 수술재료, 손·망실 처리 등) 제공

2) 적정재고 기준 확립 및 적정재고 관리

- (1) 수술재료 지침서에 따라 수술재료의 '안전재고', '적정재고' 산정 후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조회'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2) 재고 금액 비중이 큰 로봇수술 재료 관리, 미사용 수술재료 관리

3) 수술재료 관리 시스템 개선

: 네이버 카페에 수술재료 정보 게시판을 생성하고, NFC 태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술재료 사용 기록 및 확인 과정 간소화

4) 수술재료 관리 교육 시행

5) 진료과에 협조 요청

4. 개선 활동의 효과

- (1) 지표 1 · 중앙수술실의 당월 재고자산 금액
: 개선 후 1,108,349,866원으로 11.86% 감소하여 10% 이상 감소 목표를 달성
- (2) 지표 2 · 수술재료 관리업무 난이도
: 개선 후 1.47점으로 39.75% 감소하여 10% 이상 감소 목표를 달성
- (3) 지표 3 · 수술재료 관리업무 만족도
: 개선 후 4.16점으로 18.99% 상승하여 10% 이상 증가 목표를 달성
- (4) 지표 4 · 수술재료 관리업무 지식 정도
: 개선 후 4.09점으로 17.60% 상승하여 10% 이상 증가 목표를 달성

5.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

이번 QI 활동을 통해 수술 재료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여 수술재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간호사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네이버 카페와 NFC 카드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은 기록 누락 감소와 업무 편의성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재고 분석을 통해 수술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 2회 정기 교육을 시행하여 모든 간호사가 능숙하게 수술재료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RFID 선반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 및 수가 연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남간호 '핫 이슈'



남국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전담간호사의 길,
그 끝에 빛이 있기를

“ 우리는 지금 어두운 긴 터널의 끝에 와 있는 걸까?
저 멀리 보이는 빛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걸까? ”

현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의정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큰 파도를 마주하며, 저절로 떠오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교육팀 전담간호사 교육 담당 남국진입니다.

작년 9월 교육팀으로 발령 전까지는 중환자의학과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며,
전담간호사 제도와 현장 간극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왔습니다.

기다린 간호법

2023년,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고,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제정이라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날, 간호사로 살아온 저에게도 기억속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픔니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전담간호사 업무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환자는 병원에 오면 전담간호사를 신뢰하고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업무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전담간호사에게 더 많은 업무와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신체적 피로, 정신적 소진, 그리고 때로는 무기력감...

전담간호사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환경은 아직 차갑습니다.



다층적 의료전달체계,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핵심이 됩니다.

세계 의료 시스템은 단일 직역 중심에서 다직종 협업체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NP(Nurse Practitioner)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 간호사의 진단과 처방을 제도화했고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며 팀 기반 치료(Team-based care)를 이뤄 환자를 중심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습니까? 아직도 법과 제도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고, 그 기다림의 틈새는 환자과 현장 모두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담간호사 교육팀



저희 병원은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2024년부터 전담간호사 교육팀을 구성하고, 두 명의 교육담당자가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주요교육

- 전담간호사의 역할 인식 및 법적 이해
- 의사소통, EMR 사용, 검사 이해
- 응급상황 대처, 시술 보조
- Hands-on 실습 + 시뮬레이션 교육
- 임상추론 기반 문제 해결 교육과정 계획 중

교육담당자 주요업무

- 전담간호사 교육 요구도 조사
- 외부 교육이수 및 시뮬레이션 교육자 과정이수
- 근거 기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
- 신규 발령 전담간호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Onboarding) 교육운영
- 전담간호사와 관련된 외부 교육 일정 안내
-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떠나는 전공의, 자리를 지키는 전담간호사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필수의료 붕괴를 실감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면 떠나지만, 전담간호사는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며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전담간호사는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의료현장의 필수 인력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필요조건이고 국민과 환자의 신뢰와 인식 개선이 충분조건입니다.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담간호사는 새로운 역할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과 함께 해온 존재이며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키워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있는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전담간호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의 변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 중심정맥관 관리 및 제거 hands-on course



● ACS 전문심폐소생술 이론 + 시뮬레이션 과정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



110년의 기다림! 2025년 마침내 완성되다!

대한민국 간호법의 탄생은

단순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간호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110년에 걸친 역사적 여정**이었다.

1 **간호의 출발:** 제도화 이전의 태동기 (1914~1943)

한국에서 간호의 제도적 시작은 1914년 「간호부 규칙」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기, 간호 인력의 양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법적 장치로 간호와 관련하여 독립 형태의 법령이 존재하였다.

2 **의료법 속, 간호의 암흑기:** 종속의 시대 (1944~2004)

1944년 일제강점기에 전시 동원 체제 강화를 위해 「의사규칙」과 「간호부 규칙」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하면서 간호는 독립된 직역으로서 행정 관리의 틀이 분리되지 못하였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령」, 이후 1962년 「의료법」 체계로 전환되면서 간호는 의료법의 하위 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간호는 독자적인 법률 없이 의료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된 보건의료 직역으로 남게 된다. 이 시기 간호는 급속한 의료 수요 확대 속에서 병원·지역사회·공공보건 영역 전반을 떠받치는 중추 인력으로 성장했으나, 법적 권한·업무 범위·인력 배치·처우 개선 등 핵심 사안들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과 관행에 의존해야 했다.

3 간호법의 첫 요구:

제도적 각성기 (2005~2018)

2005년, 대한간호협회는 독자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간호계가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간호의 전문성·책임·공공성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 속에 명확히 위치시키려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간호법은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간호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전환기였다.



4 본격적인 추진과 사회적 쟁점화 (2019~2022)

2019년 이후 간호법 제정의 불은 재점화되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간호의 공공적 가치와 필수 의료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2021년 간호법 논의는 단순 직역법이 아닌 국민 생명 안전 법률임을 인식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면서 본격적인 추진기에 들어갔고 이를 위한 노력은 해를 거듭하게 되었다.

5 좌절과 재도전을 넘어, 역사적 완성기: (2023~2025)

연이은 3년간의 필사적 노력 끝에, 2023년 4월 27일,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2023년 5월 16일)로 큰 좌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열망은 재도전에 이르게 되고 같은 해 재발의(2023.11.22.)가 되었다.

2024년 2월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의,정 갈등은 전공의 파업으로 이어졌고, 의료공백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PA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의 절실함이 간호법 재발의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간호법은 단순 직역 보호법이 아닌 의료현장 핵심 의료인력을 위한 법률로 재정립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2024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한 번 「간호법」을 통과시켰고, 2024년 9월 20일 공식 공포되면서 한국에서 간호법이 탄생되었고, 2025년 6월 21일,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간호법 체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생애 전 주기를 돌보는 '국민 건강 기본법'에 가까운 역사적 전환점이다. 1914년 작은 규칙으로 시작된 간호의 제도화는, 2025년 마침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체계로 완성되었다.

**이는 110년 동안 축적된 간호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함께 만든 입법의 결실이다.**





이영진

前 거제시간호사회장

지난해 저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의료지원팀의 간호사로 참여하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료봉사에 참여해 왔지만, 이번 체험은 유난히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른 시각, 긴장과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섰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과 음악, 관중들의 열띤 응원으로 가득한 열기에 제 마음도 벅차올랐다. 자리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몇몇 선수와 관람객들이 컨디션 이상이나 갑작스러운 불편으로 의료지원팀을 찾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작은 부상이나 긴장으로 인한 근육 경련 등이 이어졌고, 저는 긴장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



제가 담당한 댄스스포츠 경기장은 특히 역동적인 움직임이 많아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휠체어를 능숙하게 다루며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지체장애 선수, 손끝의 감각만으로 리듬을 읽어내는 시각장애 선수, 음악 대신 몸의 진동과 파트너의 움직임에 자신을 맡기는 청각장애 선수들. 그리고 뇌병변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끝까지 무대를 완주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삶을 향한 의지와 도전의 무대였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의료지원팀의 역할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댄스스포츠 특성상 빠른 회전과 격렬한 동작으로 인해 근육 경련, 발목 염좌, 순간적인 호흡 곤란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경기 내내 응급카트와 장비를 점검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실제로 한 선수가 경기 중 심한 근육 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곧바로 달려가 마사지를 지속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건넸다. 그러나 경련이 심해 결국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 치료 후 이상 없이 귀가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날 경기장 안은 열정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순간도 시선을 땔 수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제가 간호사로서 마주했던 어떤 응급상황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순간은 시각장애 선수들의 무대였다. 그들은 음악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음악 대신 파트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떨림에 의지해 춤을 이어갔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의 언어였다. 그 순간, 제 눈앞의 무대는 춤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이번 봉사 경험은 저에게 간호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환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담겨 있다. 체전에서 만난 선수들의 땀방울과 미소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짧은 격려의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현장에서 다시 배웠다.



가을 하늘 아래, 함께 땀 흘리며 웃고 울었던 그 경험은 제 간호사 인생에 소중한 이정표로 남았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어야 한다는 제 역할을 다시 다짐하며, 오늘도 그날의 음악과 박수를 떠올린다. “환자의 곁에서,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한다.”는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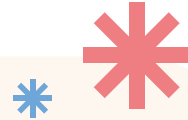
앞으로도 저는 환자와 가족 곁에서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하며, 건강을 지켜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이번 체전을 통해 얻은 감동과 다짐을 간직하며,  환자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연옥

경상남도간호사회 제2부회장

산청 수해 복구 지역 대민지원 봉사 참여 후기



2025년 7월 23일(수),

경상남도 산청군 수해 피해 지역으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경남간호사회 제2부회장으로서 봉사 요청을 받고,

기꺼이 “가야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랜만의 현장 봉사라 설렘도 있었고, 무더운 여름이라
힘들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침 일찍 함안 가야읍 함주공원 주차장에서 처장님, 하수정 팀장님,
직원 두 분과 합류해 간단히 아침을 나누고 산청읍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산사태로 통제된 도로, 여기저기 복구가 한창인 모습을
보며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산청군 읍사무소 총괄본부에 도착하니 남정자 회장님과 부군님, 손계순
거창군 분회장님, 여러 명의 회원님들까지 총 14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간호돌봄봉사단 「산청군 수해복구 지역 대민지원 봉사」

이어 산사태 피해로 어려움으로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한 뒤 일부를 차량에 싣고, 본격적인 봉사를 위해 생비량면 사대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약취가 코끝을 찔렀고, 밭의 농작물이 흙탕물에 망가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벽에는 2층 중간까지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집집마다 가전제품과 가구가 흙탕물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TV로만 보던 수해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장님 안내로 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집 안팎이 온통 흙탕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낀 우리는 창고를 정리하고, 젖은 주방도구들을 설거지해드렸습니다. 저는 주방 용기와 냉장고 안 그릇들을 세척하고 행구는 일을 도맡았고 땀이 연신 흘러내렸지만, “며칠 동안 수돗물도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간호사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다” 하시며 건네주신 음료수 한 병에 피로가 싹 잊히더군요. 아직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점심 무렵,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 같이 동사무소 2층에 비닐을 깔고 웅기종기 둘러앉아 배부해 주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커피와 처장님이 챙겨주신 삶은 달걀은 소박했지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흘린 땀만큼, 나눠 먹는 밥도 달고 특별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청소나 정리를 돕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희생과 봉사로 사명감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회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눈 단합의 의미, 그리고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다는 보람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간호사회가 이런 봉사의 가치를 이어가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남도간호사회 본회 주요소식

Chap1 각종 행사 및 사업 결과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는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025년 2월 26일(수)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본회에서는 남정자 회장을 비롯하여 2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제 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현)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전)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확정되었으며, 2년(2025~2026년)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간호 100년을 위해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과제를 실현하고, 간호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5대 대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열정과 끈기로 간호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간호 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개항의 건의문이 채택되었으며, 대의원들은 일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간호사에 대해 시상했다.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5년 3월 26일(수)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8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남정자 현)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 연임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최소영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제1부회장으로, 윤연옥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원장이 제2부회장으로 확정되었으며, 선출된 이사·감사는 다음과 같다.

■ 이사

강미숙(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김미영(창원파티마병원 간호부장)
김남부(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김정호(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인순(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박홍주(김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
성명숙(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옥행자(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이숙희(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영숙(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이정재(대우병원 간호부장)
하미경(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 감사

박신숙(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신미란(케어홈요양원 원장)

총회 개최식에는 신경림 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강기윤 前 국회의원, 이도완 경상남도보건료국장, 박인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박대출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 김종양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다.

올해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기여한 자로 시상식에서는 올해 총회 기념 수상자는 창원시 박인순 회원과 사천시 최정숙 회원이 경상남도지사상을, 창원시 노혜영 회원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고성군 박옥명 회원이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을, 창원시 김현주 회원과 창원시 이미아 회원이 창원시장상을, 창원시 공명숙 회원과 거창군 손계순 회원이 특별상을, 그리고 미래간호사에게 주는 차세대 간호리더 대표 임유민 학생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세코 더그레이드와 업무 협약 체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3월 20일(목) 세코 더그레이드(대표 윤현호)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사 복지를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및 의료 위기 대응 극복을 위한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간호사 정년 퇴직자와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1인 무료 식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간호사회 등록회원이라면 누구나 평일 20%, 주말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발급한 확인증이 필요하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정년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지역 18,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 산불 진화 한마음, 구호물품 전달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3월 25일(화)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와 산청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응 인력과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산불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 인력을 격려하고 컵라면, 빵, 음료 등 식료품을 현장에서 전달했다.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마산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4월 7일(월) 마산대학교(총장 이학진)와 경남 지역 간호 전문 인력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성 및 취업 연계, 현장 실습 확대 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경남 지역 간호 인력의 전문 교육 및 연수 운영 △보수 교육 및 산학 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 △간호 인력 및 요양보호사의 교육·실습 기관 연계 △교육 자료 및 실습 기자재 공동 활용 △외국인 교육생 대상 교수법 개발 △지역 내 간호 인력 수급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4월 9일(목)에 박병영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반복적인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지역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실태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실장이 발제,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민관 경상남도의회 회장, 김동기 거창직접자병원 관리부장, 이란혜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조례안은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 방향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조례는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경상남도간호사회는 4월 10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 힘)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법 시행(6월 21일 예정)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며, 간호사 배치기준과 보상체계,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발제는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안했으며, 지정토론회에서는 학계·임상·노동계·시민단체·법조계·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제도 설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 저소득층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4월 15일(화) 창원시 성산구청에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경상남도 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뜻깊은 쌀(10kg)과 라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탁된 물품은 창원시 성산구 관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4월 15일(화) 창원시 성산구청에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경상남도 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뜻깊은 쌀(10kg)과 라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탁된 물품은 창원시 성산구 관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남정자 회장을 비롯해 최소영 제1부회장, 윤연옥 제2부회장, 성명숙 이사, 이숙희 이사, 이정재 이사,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최영숙 성산구청장과 구청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물품 전달은 넘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공감과 연대를 실천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간호사들의 실천적 나눔은 지역 곳곳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뜻깊은 나눔에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함께 동참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산청·하동 산불피해지원 성금 전달식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4월 16일(수) 경남도청에서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간호협회(4,000만원)와 경상남도간호사회(1,000만원)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산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간호의 최신지견」 보수교육 자체개발 운영(1차 4. 18. / 2차 10. 17.)

2025년 4월 18일(금), 10월 17일(금) 2차리에 걸쳐 마산대학교에서 '치매환자 간호의 최신지견'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 간호의 최신 경향을 습득하여 최적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경상남도 간호사회에서 자체 개발한 보수교육으로 8시간이 이수 프로그램으로 경남 지역의 간호사 3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수 강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신경과)는 치매의 진단 및 약물요법을, 조경화 강사(푸른요양병원 간호본부장)는 치매환자 문제행동 증상과 간호를, 하주영 강사(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를, 신미란 강사(케어홈 요양원 원장)는 치매환자의 신체기능 관리를, 박해경 강사(경남사회복지회 원장)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사소통 및 가족 상담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고, 실무와 연결되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 응급의료지원 현장 방문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5월 15일(목) 김해 종합운동장 내 의무실을 방문해 2025년 제54회 전국 소년·제19회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과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기간 중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현장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배치되어 선수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이번 대회에 총 310명의 민간 의료 인력(간호사)을 지원했다.



2025년 제54회 전국 소년·제19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민간의료인력(간호사) 310여명 의료지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2025년 제54회 전국 소년체전과 제19회 장애학생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민간 의료인력으로 간호사 310명을 지원했다. 제19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제54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는 5월 24일(토)부터 27일(화)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김해종합운동장을 포함한 5개 시군 17개 경기장과 18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경기장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관할 119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경미한 환자는 현장에서 처치하고 중상 환자는 신속히 지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수행했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년 간호사 Work Shop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와 함께 5월 17일(토) 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융합관에서 '2025년 간호사 Work Shop'을 개최 했다. 이번 워크숍은 남정자 회장의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간호 정책 현황 보고, 차기 워크숍 개최지 선정에 대한 심의, 그리고 퀴즈를 통한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점심시간에는 거창읍 소재 '이수미팜베리'에서 단체 식사가 진행됐으며, 식사 후 체험활동으로 '수제 베리청 만들기'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거창 창포원으로 이동해 '거창 아리미아 꽃축제'를 함께 관람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워크숍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54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4회 학술대회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5월 30일(금)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행정동에서 '2025년 제54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호 교육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남정자 회장의 개회사 및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의 환영 인사말이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간호 현장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QI(Quality

Improvement) 활동 사례 발표와 14기관의 포스터 전시 및 심사, 남호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간호역량 개발사업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QI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수술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활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포스터 부문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암센터 주사실 업무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간호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간호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간호 전문성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 ICN CNR & Congress, HELSINKI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6월 10일(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간호협회(ICN) 총회에 참가했다. 전 세계 7,000여 명의 간호사 중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약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서는 각종 전통의상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보건으로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간호 리더십'을 주제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논의했으며, ICN 리더십 센터가 공식 출범해 국제적 협력과 간호 리더십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보건·공공정책 분야에서 혁신성과 영향력 인정받아 NNA 혁신상(NNA Innovation Award)을 수상하며 한국 간호의 위상을 높였다.



2025년 이웃돕기 성금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본회와 5개 분회(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진주시, 하동군간호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취약 계층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5개 분회가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천서를 제출한 분회와 본회에 각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회원 20여명과 함께 7월 23일(수) 산청군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수해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산청군 생비량면 사대마을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간호사들은 컵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피해가 컸던 마을로 이동해 무너진 담장과 흩더미, 젖은 가재도구를 치우는 등 복구 작업에 매진했다. 이번 이웃돕기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수해 피해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간호사들의 헌신과 연대 정신을 실천한 뜻 깊은 현장이 되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보수교육 자체개발 운영 (7. 4.(금)~7. 18.(금) 3회차 실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7월 4일(금), 7월 11일(금), 7월 18일(금)까지 3회차에 걸쳐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

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자체 개발한 8시간 인정 프로그램으로 총 445명의 보건교사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건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뤄 매우 유익했다”며, 특히 골절 응급 처치와 AI 보건교육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경상남도간호사회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 보건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경남 지역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보수교육 지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경상남도간호사회는 7월 31일(목) 보수교육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연옥 경상남도간호사회 제2부회장, 사무처, 경남교육청 장학사, 보건교사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보수교육 운영 전반과 향후 교육 주제 및 시설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수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보건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2025년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간호대학·병원간호부)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8월 20일(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간호대학·병원간호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간호대학 교수, 병원 간호부서장 및 회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슬기로운 신규간호사 생활’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부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의 생존전략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 김하란(경상남도마산의료원) △ 이지함(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김승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고예원(창원파티마병원) 2부에서는 12개 기관의 신규 간호사 채용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병원의 간호부서장들이 병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SMG연세병원 △ 강일병원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김해복음병원 △ 대우병원 △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창원파티마병원 △ 창원한마음병원 △ 청아병원 △ 통영서울병원 △ 희연요양병원 이를 통해 간호대학과 병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규 간호사들의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돕는 기회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과 교육의 간극을 좁히고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중소병원 간호부 간담회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8월 27일(수) 창원 컨벤션센터 1층 세코더그레이트에서 도내 중소병원 간호부서장과 회원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병원 간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병원 간호부 간 정보 공유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 인력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1부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강의를 진행 예정이었으나, 정부 회의 참석으로 남정자 회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과정 및 향후 과제 - 간호법 그리고 간호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강 2부에서는 이주영 서치마인드 코리아 대표가 「나의 감정 찾기로 스트레스 극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병원 간호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간호 현장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10월 21일(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회장 신희범)과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와 돌봄, 그리고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건의료·복지 정책 제언 및 캠페인 전개 ▲건강하고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재가임종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참여 기반 조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포럼·세미나·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은 “이번 협약은 간호전문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 건강과 돌봄을 연계함으로써, 간호돌봄의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적 돌봄 체계 속에서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초청강연회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11월 5일(수)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 1층 청강홀에서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2025년 초청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서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논의의 핵심 쟁점과 지역 의료현장의 과제’를 주제로 개회사를 전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대응하는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전문성 존중과 역할 명확화가 곧 지역 의료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학진 마산대학교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다룬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지역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정자 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간호사들이 전문성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앞으로도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 간호정책 선포식 참석

대한간호협회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11월 17일(월)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열렸으며,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부 회원들은 3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식전행사,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공개된 ‘간호정책 성과 기념 영상’은 지난 15년간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축적된 대표 성과를

조명했다. 간호교육 제도 개선과 처우 향상, 그리고 간호계의 숙원이던 2024년 간호법 제정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여섯 가지 과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가 건강정책을 좌우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후반에는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관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핵심 슬로건을 외쳤고, 체육관을 가득 채운 휴대폰 플래시가 켜지며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이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또한 전국 65만 간호인을 대표해 지역사회 간호사부터 간호대학생까지 구성된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숙련도 인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간호사가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행사는 가수 기리보이와 조성모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간호사들은 “간호의 새 시대”를 함께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축하 및 참석

올해도 경남도 내 각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선서식에 참석하여 축하 화분과 함께 축사로 선서생들을 격려했다. 나이팅게일선서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기초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병원 등 간호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선서식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과 가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중략-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역사를 보면, 1893년,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하퍼병원 간호학교 졸업식에서 최초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한 이래로 1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호학도들에게는 전통적인 예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대한간호협회에서 각 간호교육기관의 서약문을 통일하여 지금까지 각 간호대학의 선서식에서 낭독되고 있다.



2025년 전임회장 간담회

2025년 12월 5일(금), 창원시 일대에서 사업시행 결과 보고 및 간호계 현안 논의를 위한 전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옥, 김정석, 우선혜, 정순자, 조순옥, 이경옥, 박형숙 전임회장을 비롯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최소영 제1부회장, 윤연옥 제2부회장, 팀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법 하위법령을 포함한 주요 간호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간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질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간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간호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 1차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5월 26일(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 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남정자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 2차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5월 30일(금)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주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를 위한 2차 촉구 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되었으며, 경남지부에서는 약 21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어 수천 개의 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식적인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향후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가며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1인 시위 참여 5. 20.(화)~6. 20.(금)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5월 2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1문·2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남정자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최소영 경상남도간호사회 제1부회장, 윤연옥 경상남도간호사회 제2부회장 및 회원 10명이 동참하여 간호법에 대한 올바른 시행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간호정책 관련 활동 확대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1. 18.):**
회장, 사무처장
- **강기윤 前 국민의 힘 국회의원 비대면 면담(2. 28.):**
회장
- **경남지역 국회의원 16명 국회의원실 보좌관 비대면 면담(3. 11.~3. 14.)**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호정책 간담회(5. 21.):**
회장 외 10명 참석
- **정점식, 허성무, 최형두, 신성범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및 면담(9. 19.):** 회장, 처장 참석
-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후보 출판기념회 참석 및 축하 화분 전달(11. 29.):** 회장 외 4명
- **창원의 포럼 미래 출범식 및 토론회 참석 및 축하 화분 전달(11. 29.):** 회장 외 4명



2025년 간호정책 교육 9회 실시

차수	일자	장소	인원
1차	11.3.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의실	14
2차	11.3.	삼성창원병원 행정동 1층 대회의실	49
3차	11.10.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의실	7
4차	11.10.	푸른요양병원 로비 1층 강당	67
5차	11.19.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402호	27
6차	12.5.	창원한마음병원 4층 한마음홀	52
7차	12.15.	창원파티마병원 5층 강당	29
8차	12.17.	새롬재활요양병원 5층 회의실	20
9차	12.17.	마산의료원 지하강당	69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축하 이벤트 진행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6월 21일(토) 간호법 시행을 기념하며 '6월 21일 간호법,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자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간호법 시행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간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도 등록회원 중 선착순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했다. 이벤트 응모는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6월 25일 모바일 커피 쿠폰이 일괄 발송됐다. 회원들은 이번 이벤트에 큰 호응을 보였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남정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간호법 시행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간호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
`올해의 간호인상(선행)`(2.26.)
정순자 21대 전임회장



대한간호협회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
`보건복지부장관상` (2.26.)
김은희 (eh)여성HealthCare연구소장

본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간호협회장상` (3.26.)
노혜영 경상남도청 지방서기관



본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경상남도간호사회장상` (3.26.)
박옥명 前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본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경상남도지사상` (3.26.)
박인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최정숙 한마음노인요양병원 본부장



본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창원시장상` (3.26.)
김현주 창원파티마병원 호스피스병동 수간호사
이미아 청아병원 간호부장



● **본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특별상` (3.26.)**

공명숙 경남요양병원 간호부장
 손계순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수
 임유민 차세대간호리더 8기 대표

● **2025년 제54회 전국 소년·제19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유공 `경상남도지사상` (6.30.)**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이영진 거봉백병원 부장(前 거제시간호사회 회장)
 백숙영 前 숲속요양병원 간호부장(밀양시간호사회 회장)
 박시은 화사랑요양병원 간호사
 허성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교육전담간호사
 하수정 경상남도간호사회 팀장



● **2025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상`
 유공 `경상남도지사상`(9.5.)**

김은자 합천고려병원 간호사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주요소식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2008.06.24.

산불피해지역 재해복구 후원금 지원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4월 3일, 산불피해지역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지역 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복지와 재난 대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진해시니어클럽 참여자 건강부스 운영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6월 16일, 2025년 참여자 CS 직무교육 참석자 9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검진은 교육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석 및 장학금 전달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송경희)는 11월 13일과 14일, 문성

대학교와 마산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화분을 전달했다. 마산대학교에는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의 정서적 치유와 학업 지원을 위해 화분을 함께 전달하였다.

진주시간호사회

2008.07.09.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진주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 25일(금) 진주 동방호텔 2층 올리브홀에서 '2025년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약 2,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진주시간호사회는 이날 임원 및 대의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회무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제9대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제9대 회장으로 이영숙회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2023년·2024년도 사업 시행 결과 보고와 예·결산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 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이 참석해 진주시간호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경남간호사회 공로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거제시간호사회

2008.10.10.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김민자)는 2008년 창단 이후 지난 4월 22일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진 전 회장과

김민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명을 비롯해 전임 회장단과 외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주요 회무 보고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제시간호사회는 새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간호 발전과 회원 간 협력 강화에 힘을 계획이다.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김민자)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슬기로운 노년생활,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6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강의, 디지털 소통 교육, 복합운동 댄스, 뷰티 클래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역량개발사업 실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김민자)는 간호사의 역량 개발과 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7월 1일과 2일 양일간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룹 활동 방식으로 진행돼 회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거제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전문성

강화와 조직 내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진 워크샵 개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김민자)는 지난 9월 20일 임원진 워크숍을 열고 '거제 치유의 숲'을 방문해 힐링과 조직 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임원 간 소통 강화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며 향후 간호사회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간호봉사

거제시간호사회(회장 김민자)는 9월 30일 지역 사회복지 시설인 '작은예수(안나)의 집'을 방문해 보건교육 강의와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실습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시설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왔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줍킹챌린지'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5월 10일(토)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하여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통영이순신공원 일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지역사랑, 줍킹챌린지'를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였다.



초청강연회 및 'Cheer up' 행사 (요트힐링 프로그램)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6월 12일(목) 통영시 소재 통영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저연차 간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의 손길, 나를 위한 요리로부터'를 주제로 요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직접 요리를 만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요리라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였다. 강연 후에는

cheer up 행사로 통영 도남동 일대에서 요트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재충전하였다.



회원역량강화사업 (전기코드 박스 만들기)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통영시소재 통영풀잎문화센터에서 10월 24일(금) 2회차로 나누어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30명이 '내 마음을 담은 목공예 작품 만들기'를 주제로 전기코드 박스 만들기를 하였다. 목공예 만들기 체험을 통한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었고 회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불우이웃돕기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이수임)는 2025년 8월, 경남간호사회 지원과 간호드림 재가방문센터 박경미 대표간호사의 추천으로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어르신은 가족 없이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지내며 피부질환, 당뇨,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주변을 뭉클하게 했다. 하동군간호사회는 오는 10월 다시 방문해 집 안 정리 및 수납 개선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김해시간호사회(회장 박영미)는 2025년 4월 23일 김해 비즈컨벤션에서 대의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9대 임원 선거 등을 함께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본회의 조직 운영을 체계화하고, 향후 지역 간호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초청강연회

김해시간호사회(회장 박영미)는 2025년 9월 4일, 김해 대학교 창의관 컨퍼런스홀에서 회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간호사를 위한 AI(ChatGPT)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간호 실무와 행정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강연의 목적은 회원들의 분회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본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있다. 참석자들은 최신 기술을 간호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이웃돕기 성금기탁

김해시간호사회(회장 박영미)는 2025년 9월 24일 김해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이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였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김해시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 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2명에게 전달 되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간호사회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지역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양산시간호사회(회장 하미경)는 2025년도 제17회 양산시간호사회 총회를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개최하였다.



초청강연회

양산시간호사회(회장 하미경)는 2025년 5월 27일(목) 오후 4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심리적 직장생활을 도와줘」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GAM컨설팅 박진우 소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심리 이해와 소통 방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전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양산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거창군간호사회

2010.6.18.



간호돌봄봉사단 활동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는 5월 30일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힐링 돌봄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간호사 회원 6명과 간호학생 11명이 참여해 건강박수 치기, 건강체조('풍당풍당', '주먹가위 보'), 학생 공연(노래 2곡, 율동 2곡), 저녁 식사 조력, 아로마오일·로션을 이용한 손 마사지, 병실 이동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는 동시에, 입원 어르신들의 소근육 움직임을 돕고 정서적 치유와 활력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는 10월 20일부터 23일 까지 지역 내 14개 의료기관에서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원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간호사 회원 69명을 포함해 환자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관엽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사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 소속감을 높이고, 원예활동을 통한 마음 치유와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발전기금(장학금) 기탁 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는 10월 23일 경남도립거창대학을 방문해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거창군간호사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지역 우수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확대됐다.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손계순)는 김재구 총장에게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 간호사회는 2010년 창립 이후 회원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남해군간호사회(회장 강숙녀)는 7월 9일(월), 남해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에서 회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땀, 한 땀, 가족 키링 만들기' 자기개발·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창의 활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적 힐링과 전문직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직접 가족 키링을 제작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및 명랑운동회 참여

남해군간호사회(회장 강숙녀)는 9월 8일(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명랑운동회에 회원 6명이 참여해 지역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서 장미경 회원이 남해군수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간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해군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웃돕기 성금 지원

남해군간호사회(회장 강숙녀)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이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9월 26일(금), 2명의 어르신을 방문해 쌀, 화장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남해군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기총회

합천군간호사회(회장 김선돌)는 4월 24일(목) 합천읍 '명품돼지'에서 회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각종 시행 결과, 감사보고 등이 공유되며 회원들이 조직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합천군간호사회(회장 김선돌)는 4월 30일(수) 합천군 평생학습관 3층 강의실에서 회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손으로 엮는 마음치유' 라탄 공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라탄 가방 및 라탄 조명등 만들기에 참여하며 직접 만드는 즐거움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밀양시간호사회

2016.03.19.



제10회 밀양시간호사회 정기총회

밀양시간호사회(회장 백숙영)는 4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호텔아리나 세프앤고메에서 밀양시간호사회는 내빈 및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연도 사업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회칙 일부개정을 심의하였다.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

밀양시간호사회(회장 백숙영)는 5월 23일(금)에서 27일(화)까지 진행된 제54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간호사 의료 지원을 실시하였다. 5일간 배드민턴과 야구소프트볼 총 16경기에 11명의 간호사가 투입되어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운영에 기여하였다.

함안군간호사회

2017.03.27.



이웃사랑 나눔봉사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황혜주)는 7월 15일 제5회 정기총회를 마친 뒤, 행사에서 마련된 쌀 10kg 10포대를 칠원 성상담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활동으로, 함안군간호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초청강연회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황혜주)는 9월 13일 '퇴근길 경제수업'을 주제로 박계선 금융경제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회원들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돌봄봉사단 발대식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황혜주)는 9월 17일 회원 56명 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간호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봉사단은 앞으로 다양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호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황혜주)는 10월 18일 범수면 토포리 명가에서 '발효의 맛! 고추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전통 방식의 발효 과정을 배우고 직접 고추장을 만들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소식



실기교육(기본)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2월부터 10월 까지 총 18회에 걸쳐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교육생 및 의료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핵심간호술기 숙련도와 임상 현장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교육 대상은 신규 및 재직 간호사 중 실기교육이 필요한 인력으로,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총 431명의 신규 및 재직 간호사에게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자들은 기본 간호술기의 정확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현장 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기교육(시나리오 II)

실기교육의 심화 과정인 시나리오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심 시나리오에 기반한 교육으로 인수인계 및 심정지에 관련한 임상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재직 간호사 중 실기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갑을장유병원, 강일병원, 거봉백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맑은샘

병원, 상남한마음병원, 창원한마음병원, 한일병원 9개 기관에서 11차수로 1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습지도자 양성교육(기본)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3월 12일, 실기·실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최신 임상술기 및 간호 절차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유휴 및 신규간호사의 취업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 대상은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로,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여 36명의 간호사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습지도자들은 최신 임상지식과 표준화된 간호 절차를 습득함으로써,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실습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신규 및 재취업 간호사의 안정적 현장 적응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실습지도자 양성교육(시나리오 II)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는 간호인력 실기교육 기본 과정을 기반으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심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심화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임상 판단력 및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병원 내 실습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총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19명의 간호사가 시나리오 강사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 과정은 임상 현장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참여 간호사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실습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과 임상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재취업간호사 교육

재취업간호사 교육은 유휴간호사의 원활한 현장 복귀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본 교육은 기초간호 이론 및 술기 습득을 통한 임상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2025년 4월 23일부터 25일, 8월 27일부터 29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은 온라인 12시간, 이론교육 20시간, 실기교육 11시간 등 총 31시간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총 3차 교육으로, 본 과정을 통해 유휴간호사들이 임상 현장 복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MR 실기교육

재취업간호사 및 교육 희망 간호사 대상으로 EMR(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의 EMR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은 2025년 4월 25일, 8월 29일, 11월 28일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EMR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 및 실습 지도를 담당하였다. 특히, 센터 내에 실제 임상 환경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EM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취업간호사들은 전산 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복귀 시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호조직활성화 워크숍(업무성향 진단 기반 워크숍)

간호조직 활성화 워크숍은 간호조직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자신과 동료의 업무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업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 내에 적용함으로써, 협력적인 간호 업무 수행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워크숍은 10월 21일 진주한일병원과 10월 23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총 2회에 걸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호조직활성화 워크숍 (간호관리자 대상 '소통의 리더십' 워크숍)

간호조직활성화 워크숍은 2025년 10월 20일, 23일, 29일 그리고 11월 4일, 7일 5차례에 걸쳐 간호조직 내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자신과 동료의 업무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업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 조직에 적용하도록 하여 협력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간호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삼성창원병원, 2차 강일병원, 김해더큰병원, 3차 거제거봉백, 맑은샘, 대우병원, 4차 마산의료원, 5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총 157명의 간호사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추석안심캠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25년 10월 3일부터 4일간 창원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 건강안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국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귀성을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QR 배너를 통한 건강정보 안내와 간호사의 간단한 상담, 건강행운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총 1,017명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실천 의식 향상과 간호사 신뢰도 증진,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간호보조인력 대상 교육

간호보조인력 대상 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직업윤리 및 의사소통, 상황별 환자·보호자 응대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는 국립마산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윤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통영적십자병원, 한일병원, 헤인요양병원 등 8개 기관의 간호보조인력 7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였다. 오프라인 교육에는 강일병원과 갑을장유병원에서 총 49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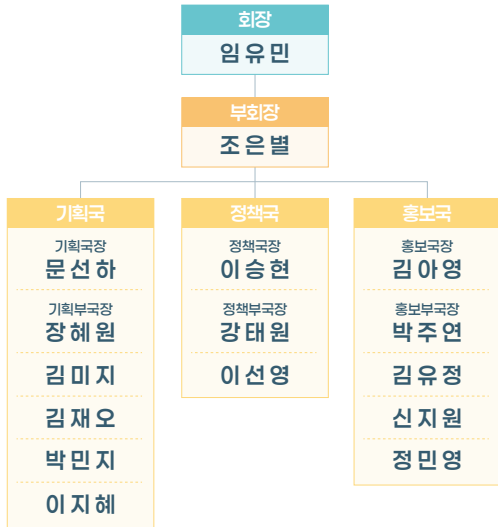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운영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는 간호인력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등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2025년에 최초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인력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인력으로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 상담가가 총 6명의 내담자(간호인력)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탐색하고, 심리적 회복 및 자기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상담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19일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간호인력이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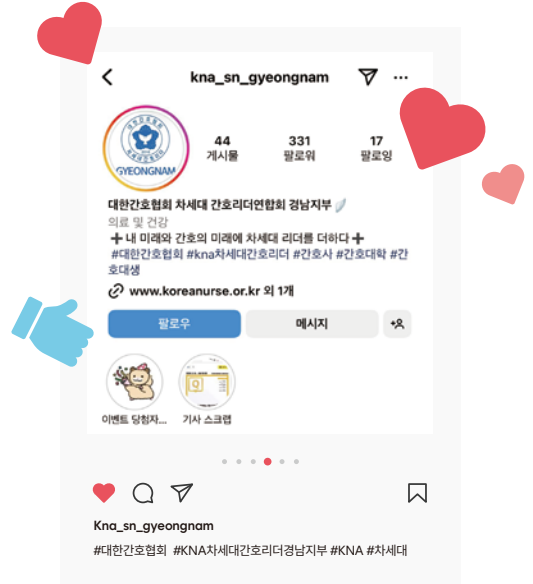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 활동

조직도 및 구성원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미래 간호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총 1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명은 군복무 중이며,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리더는 16명으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폭넓은 활동 기반을 갖추고 있다.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임원진 8인을 중심으로 기획국·정책국·홍보국의 3국 체제로 운영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워 330명, 게시물 66개(2025. 9. 29. 기준)를 기록하며, 온라인 이벤트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 instagram★ (kna_sn_gyeongnam)





“간호대생 갯살살기” 이벤트 진행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간호대생들이 학습, 건강, 자기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는 “간호대생 갯살살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방학 동안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고, SNS를 통해 챌린지 형식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경남지부는 흥보국과 협력해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마산대·부산대 및 전국 정책국 단체 카톡방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며 긍정적인 간호대학 문화를 조성했다.



해피널 삼행시 이벤트 제작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해피널 삼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사는 해피널을 주제로 삼행시를 제작하여 게시물 댓글로 업로드하고, 좋아요를 눌러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벤트 게시물은 카드뉴스와 스토리 형태로 제작되어 해피널 소개와 함께 공유되었다. 심사는 내부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가장 인상 깊거나 창의적인 삼행시를 선정해 총 5명의 당첨자를 추첨했다. 경품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제공되었으며, 당첨자는 2025년 3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별 DM으로 안내되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해피널의 친근한 이미지를 알리고,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장수궁뎡이
3분 전에 활동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코드를 등록하여 선물을 받아보세요.

- 선물코드 : PNFGNJJDYW5
- 선물명 : 아메리카노 (Ice) (TAKE-OUT)
- 코드등록 유효기간 : 2025.05.04
- 코드등록 방법 : 카카오톡 > 선물하기 > 선물할 > 선물코드 등록
- 등록 URL : <https://kko.kakao.com/-hOdWvycyA>

kko.kakao.com

안녕하세요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경남지부 정책국입니다 !!

이벤에 저희가 준비한 "시험기간이 제일 무서워 미룬이OUT!" 이벤트에 소중한 시간내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등 당첨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험기간이 제일 무서워 미룬이 OUT! 인증하고 선물받자” 이벤트 진행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4월 14일부터 29일 까지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며 동기부여를 주고받는 긍정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대상은 간호대학생 1~4학년으로, 참여자들은 시험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세운 학습 목표를 실천하고 그 과정을 SNS에 인증했다. 이벤트는 경남지부 인스타그램, 학교 단톡방, 에브리타임을 통해 홍보되었으며, 참여 횟수에 따라 추첨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총 8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반복 참여를 통해 학습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배달의 민족 2만원 상품권이, 나머지 7명에게는 컴포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공되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남지부는 향후 더욱 개선된 전략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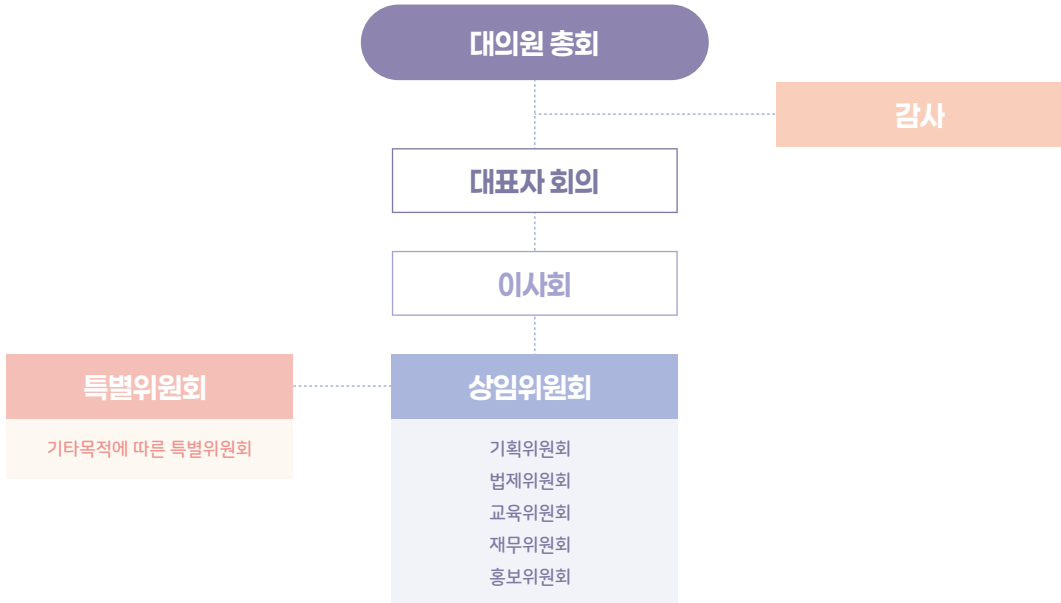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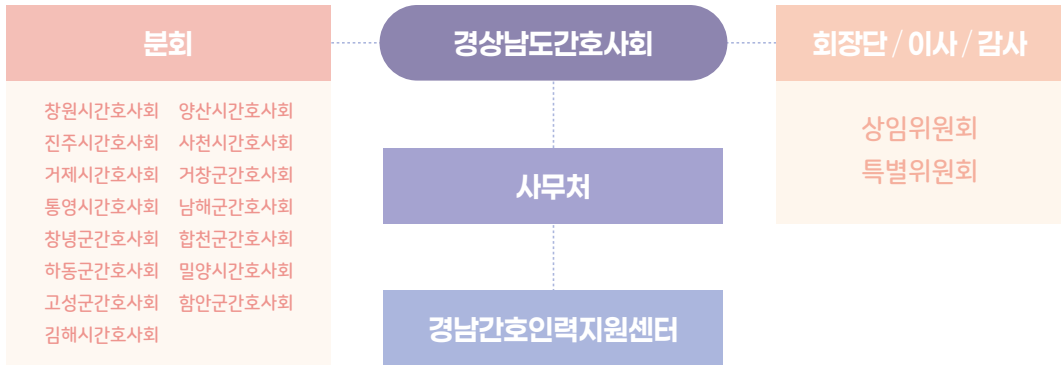


“간호사 처우 개선, 나의 선택은?” 캠페인 성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경남지부는 4월 28일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나의 선택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 개선 활동에 활용할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은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117명으로 예상보다 많은 참여와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항목은 ▲간호인력 확충 ▲야간 근무 수당 인상 ▲간호사 휴게시간 보장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4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복숭아 아이스티 등 음료가 제공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한 학습 및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2025년 12월 기준)

임원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근무처 / 직책
1	회장	남 정 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제1부회장	최 소 영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제2부회장	윤 연 옥	상남한마음병원 간호부원장
4	이사	강 미 숙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5	이사	김 미 영	창원파티마병원 간호부장
6	이사	김 부 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7	이사	김 정 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이사	박 인 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9	이사	박 흥 주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
10	이사	성 명 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11	이사	옥 행 자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담당
12	이사	이 숙 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3	이사	이 영 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14	이사	이 정 재	대우병원 간호부장
15	이사	하 미 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16	감사	박 신 숙	前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17	감사	신 미 란	케어홈요양원 원장

본부 회장 명단

단체명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창원시간호사회	회장	송 경 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진주시간호사회	회장	이 영 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거제시간호사회	회장	김 민 자	거제시보건소 복지팀장
통영시간호사회	회장	성 명 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창녕군간호사회	회장	권 경 순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하동군간호사회	회장	이 수 임	하동우리들병원 간호부장
고성군간호사회	회장	이 을 희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시간호사회	회장	박 영 미	강일병원 간호처장
양산시간호사회	회장	하 미 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사천시간호사회	회장	김 선	삼천포서울병원 간호부장
거창군간호사회	회장	손 계 순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수
남해군간호사회	회장	강 속 녀	시문보건진료소장
합천군간호사회	회장	김 선 들	합천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밀양시간호사회	회장	백 속 영	前 속속요양병원 간호부장
함안군간호사회	회장	황 혜 주	새롬재활요양병원 간호부장

상임위원 명단

(2025년 12월 기준)






구분	직책	성명	근무처
기획위원	위원장	최 소 영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위원	강 선 화	경상남도청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파트장
		김 부 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박 인 순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배 영 희	김해복음병원 간호이사
		전 미 경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 인 속	부산대학교 간호대학(과)장
법제위원	위원장	윤 연 옥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원장
	위원	김 미 영	창원파티마병원 간호부장
		김 민 자	거제시 고현동주민복지센터 복지팀장
		김 성 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 미 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오 경 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 경 화	푸른요양병원 간호본부장
교육위원	위원장	김 정 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원	김 민 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간호팀장
		김 점 남	진주경상국립대학교병원 외래과장
		배 연 희	삼성창원병원 병동간호팀장
		유 미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과)장
		윤 은 속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 남 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재무위원	위원장	옥 행 자	함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위원	문 영 실	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 인 속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윤 소 영	메트로병원 간호부장
		이 경 란	창원한마음병원 간호과장
		이 속 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 진 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홍보위원	위원장	강 미 속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간호부장
	위원	강 미 윤	창원파티마병원 간호1팀장
		김 영 란	큰바다요양병원 간호부장
		남 호 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 영 애	양주중학교 교장
		최 경 란	삼성창원병원 수술간호팀장
		하 미 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경상남도 간호사회 선거관리 위원회 및 대외협력 위원 명단

구분	직책	성명	근무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강 경 혜	강'S 시니어연구소장
	위원	박 미 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행정간호과장
		서 연 속	삼성창원병원 진료협력센터
		신 희 영	창원한마음병원 병동간호팀장
		이 재 운	국립부곡병원 행정교육팀장
		정 진 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최 효 정	대우병원 간호교육팀장
		탁 금 정	진주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육수간호사
		황 혜 주	새롬재활요양병원 간호부장

구분	직책	성명	근무처
대외 협력 위원	위원	김 영 란	큰바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 영 미	前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김 은 희	(eh)여성HealthCare연구소 대표
		서 희 속	다운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성 명 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송 경 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이 옥 경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전 진 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팽 화 속	SMG연세병원 간호본부장
		최 은 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경상남도 간호사회 사무처

사 진	조직 구성
	김남숙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
	하수정 경상남도간호사회 팀장(회무 및 행정)
	윤성희 경상남도간호사회 사원(회무 및 행정)
	손아름 경상남도간호사회 사원(회계)
	송송이 경상남도간호사회 사원(교육)

T 055.262.6006
 F 055.262.6098
 E kyn@koreanursing.or.kr



경남 간호인력 지원센터

성명	직책
김남숙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장
이경옥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팀장
정현지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직원(회계)
김지원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직원(회계)
신민정	경남간호인력지원센터 직원(교육)

T 055.281.5522 E rnjobkn@koreanursing.or.kr



편집자 레터



26년 간호계는 전문성과 헌신으로 의료현장을 넘어 지역사회 속 간호 돌봄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호회지는 지난 2025년도의 발자취와 간호사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며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강미숙 홍보위원장>

경남 간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간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간호사회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미윤 홍보위원>

해마다 함께 회지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치열한 순간부터 따뜻한 일상까지 우리 간호사들의 저력을 다시 느낍니다. '경남간호'가 지친 일상속 잠시 쉬어가는 기분 좋은 심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영란 홍보위원>

2025년 한 해도 경남간호사회와 경남의 간호사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경남간호] 회지는 올해도 활동과 성장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장입니다. 이 지면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과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고 작성과 편집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진료지원간호사와 통합돌봄간호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 등 더욱 경남간호가 발전하고 최선을 다해온 노력과 성취가 지면에 차곡차곡 담겨 성장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호희 홍보위원>

경남간호인의 원고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함과 열정 덕분에 이 회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배움과 보람을 느꼈으며, 우리 경상남도간호사회가 얼마나 살아 있는 공동체인지 곳곳의 다양함에서 다시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남간호인 VOL 31 회지가 우리 단체의 활동과 정신을 담은 의미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애 홍보위원>

각자의 자리에서 안개꽃처럼 묵묵히. 그러나 빛나는 전문성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경남간호 2026년에도 화이팅 하세요~~ <최경란 홍보위원>

경남간호가 31번째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경남간호사들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2026년에도 경남간호를 통해 따뜻한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하미경 홍보위원>



Vol. 31

경상남도간호사회지

경남간호

